

## [특별기획] 한류를 말한다 ③

### 한류 이것이 문제다

윤재식(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2팀장)

한류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는 연재를 마련했다. ① 한류, 무엇을 가져왔나 ② 국가별 한류 현황과 전망 ③ 한류 이것이 문제다 ④ 한류 지속을 위한 과제로 총 4회에 걸쳐 수록한다. <편집자 주>

동아시아를 넘어 중앙아시아와 중동,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그 세를 확장해가며 지칠 줄 모르는 인기를 과시하던 한류(韓流)는 최근 들어 이상기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한류의 초기에도 이런 이상기류가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최근에 나타나는 한류에 대한 역풍(逆風)은 보다 조직적이고 치밀하며 악의적이라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한다.

이번 호에서는 한류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역풍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그 원인과 대응책을 살펴 보고자 한다.

#### 그 밥에 그 나물

한류의 확산에는 방송 영상물, 그 중에서도 트렌디 드라마가 그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류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트렌디 드라마가 역으로 한류의 발목을 잡는 시초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 한류의 진원지였던 베트남의 언론 및 방송 관계자들은 비슷한 스토리라인의 드라마들이 시청자들에게 식상함을 안겨준다고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다. 잘 생긴 남녀 배우가 출연해서 삼각관계를 이루고, 불행한 처지의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과 운명적인 사랑을 하며, 사랑하는 남녀 주인공을 둘러싼 조연들의 과장된 시기와 숨겨진 가족관계, 죽음에 이르는 병 혹은 불행한 이별의 결말이라는 비슷비슷한 스토리들은 시청자들에게 한국 드라마는 ‘배우-한국 풍경-삼각관계-불행’이라는 공식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비슷비슷한 설정의 드라마들은 빼어난 영상미와 아름다운 음악, 빠른 전개 등 한국의 드라마가 지니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각국의 시청자들에게 ‘식상한 이야기’라며 외면을 자초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게다가 주인공의 죽음이나 이별과 같은 불행한 결말은 ‘권선징악’에 익숙한 아시아 시청자들의 정서에 거부감을 준다는 사실도 되새겨 볼 만하다.

게다가 한국 드라마의 상업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하이 영화예술학원에서 만난 한 학생은 인터뷰에서 “한국 드라마가 상업성이 너무 짙어 조금만 보면 싫증이 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류의 붐을 타고 드라마 및 영화의 해외 배급이 원활해지면서 높아진 배우들의 개런티는 작품의 질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한류 역풍의 원인을 내부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들려오기도 한다.

## 가치의 대립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국가들과 베트남은 한국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 불교와 유교라는 전통적 가치의 공유와 함께 가풍을 중시하고 경로효친, 장유유서의 전통을 통한 가족주의와 가부장제도가 그러하다. 1970년대 우리가 겪었던 경제적 고도성장 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동에서 비롯된 갈등 역시 최근 정치 경제적 개방화에 따른 동아시아 각국의 갈등 양상과 흡사하다. 이들 국가들은 경제 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빈부의 격차와 자본주의 도입에 따른 부정부패와 물질 만능주의, 외래문화 유입에 따른 기존 가치와의 갈등이라는 후유증을 겪고 있다. 또한 경제 개방화를 통한 소득 수준의 향상과 가치관의 변화 등은 서구적 문화상품에 대한 새로운 욕구를 낳았다. 동양적 바탕 위에 서구적 스타일을 갖춘 잘생긴 배우와 아름다운 배경,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요약되는 한국 대중문화 상품의 미덕은 이러한 욕구와 시기적으로 잘 맞았기에 단시간 내에 한류의 확산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기존의 기성세대들에게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따라하는 청소년을 비롯한 신세대들의 한국 대중문화 요소의 모방이 못마땅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유교적 전통과 사회주의 가치관에 길들여진 중화권 국가들과 베트남의 경우 한국식의 염색머리와 과도한 노출 및 화장, 폭력적 요소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중화권 국가들에서 보도되는 한국 연예인들의 성형 의혹과 관련한 보도들은 이러한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단적인 예다.

## 일본의 혐한류, 중국의 규제조치

여기에 자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류에 종속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된 문화적 반발감은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안티 코리아’ 혹은 ‘안티 한류’를 내세우는 사이트들도 등장했다.

일본의 한 반한 사이트에는 ‘Stop the 韓流, no more Korean Boom(한류는 이제 그만)’이라는 로고까지 만들어 올리는 한편, 「혐한류」라는 제목으로 노골적인 반한 감정, 반한류 감정을 드러내는 만화책은 일본 내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에서 판매 1위를 다투며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고, 반한류를 조장하는 블로그들도 성행중에 있다.

만화 「혐한류」는 한류에 대한 반감에서 나아가 독도 문제부터 월드컵, 한국과 일본의 역사 및 전후 보상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악의적이고 억지스러운 내용을 그럴 듯하게 표현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한국을 비하하고 왜곡된 지식을 전달하는 이 만화에 대한 각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만화 「협한류」로 대표되는 한류에 대한 반감이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만화라는 일본의 대표적인 콘텐츠를 통해 일본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퍼질 수 있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나아가 각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한류 스타들에 관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오보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지우는 양키계(‘날라리’라는 의미의 일본 비속어)의 여왕인가?”(일본 「주간문춘」, 2005년 1월), “윤사마 미소 속에 숨겨진 11가지 의혹”(일본 「주간문춘」, 2004년 11월)을 비롯, 최근에는 베트남의 한 일간지가 「폴하우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송혜교에 대해 ‘다이어트 용으로 홍콩에서 마약을 구입하다 적발됐다’는 오보를 내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마약 구입 시 함께 있었던 비, 송일국과 함께 송혜교가 구속 수감 중’이라는 엉터리 기사까지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다. 여기에 ‘윤사마 신드롬’으로 대표되는 열풍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는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나아가 주간 「슈칸신초」는 “배용준은 윤사마가 아니라 ‘윤군’이 나 ‘윤씨’라고 부르는 것이 적당하다”며 한류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악의적인 보도의 이면에는 한국의 대중문화에 자국 문화가 잠식당할 것을 우려하는 심리가 바탕에 깔려있다고 하겠다. 현재 아시아 전역, 특히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일본에서 폭발적인 붐을 일으킨 「겨울연가」를 제외하고라도 홍콩과 대만, 중국, 일본에서까지 인기리에 방송 중인 「대장금」과 송혜교, 비 주연의 「폴하우스」 등의 최근 작품들만 보더라도 각국에서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수입된 아시아권 드라마라고는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일본과 중국, 대만 드라마 몇 편이 전부이고, 이들 역시 시청률에서는 그다지 큰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국내 언론의 보도 역시 한류의 흐름에 있어 호혜적인 관계보다는 일방적인 진출과 경제적 효과에만 치중하고 있어 상대국의 반발을 가져오기 쉬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일본 연예계에서는 한국 연예인들의 진출이 계속되면서 일본 연예인들의 노출 기회가 줄어들어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한국에도 일본처럼 시장을 완전 개방토록 요구하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연예계 일각에선 한국과의 공동사업을 줄이는 대신 홍콩과 대만, 동남아 쪽과 연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중국에서는 한국 문화에 극도의 혐오감을 나타내는 ‘안티하한추(哈韓族)’ 세력이 퍼지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하한추’와 한류 열풍에 공개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시나닷컴(www.sina.com) 등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는 한국과 한류를 비판하는 이들 안티하한추의 주장이 빈번히 올라오고 있다.

최근 중국 언론이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0%가 ‘한류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중국에서 국민배우로 불리는 천다오밍(陳道明)은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한국 배우의 무분별한 중국 영화와 드라마 출연은 위험수위를 넘었다’면서 “더 이

상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중국 언론에는 ‘한류, 이대로 좋은가’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외세 침투에 민감한 중국 문화예술인들이 외국 문화, 특히 한국 문화가 ‘안방’에 들어오는 데 대해 자존심이 상해 있다는 것이다. 독자 반응을 보면 한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므로 한국 배우의 중국 출연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사람이 70%, 막는 것에 반대한다는 한류 지지자가 30%로 나타나 보통 중국인의 정서도 한류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류의 일방적인 흐름에 대한 문화적 위기감은 국가적인 차원의 규제조치를 초래했다. 대만의 경우 한류 열풍 초기에 드라마 1회당 2천 달러 내외이던 판매가격이 판매 대행업자를 제치고 한국의 방송사들이 직접 경매 입찰에 나서면서 많게는 회당 2만 달러까지 가격을 올리는 등의 터무니없는 가격 정책으로 인해 대만 방송사들의 반발심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급격한 가격 상승은 비단 대만의 경우 뿐만 아니라 한류의 붐이 조성되고 있는 아시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처럼 급격한 가격 상승은 한국 드라마의 방영 시간 축소를 불러 일으켰다. 6개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대만의 「비디오랜드」의 한국 드라마 방영시간은 2003년 811.5시간에서 지난해 356시간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그림> 참조). 여기에 대만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과 함께 한국 드라마의 높은 가격에 대한 반발로 7월부터 한국 드라마에 대해 2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국의 경우 주요 방송시간대에 한국 드라마를 비롯한 외국의 드라마를 방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2000년 6월에 발표된 드라마 관리규정에는 수입드라마가 총 방송시간의 25%를 초과하지 못하고, 황금시간대(오후 7시~10시)에는 1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발표된 새 규정은 해외 드라마와 영화 방송시간은 총 방송시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더불어 수입 드라마와 영화 이외의 수입 콘텐츠의 총 방송시간을 전체 방송시간의 15% 이내로 규정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민방인 니혼TV와 후지TV가 가을 개편을 통해 한국 드라마 방송 시간대 축소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한국 드라마 방송 시간의 축소에 대해 일본의 관계자는 일방적인 흐름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급작스레 높아진 프로그램 단가에 비해 저조한 시청률 때문이라고 밝혔다.

## 일방적인 흐름을 넘어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를 풍미하다 한 순간에 사라진 ‘홍콩류’를 기억할 것이다. 이제 한류는 반한류라는 거센 파도를 넘고, 일순간 사라진 홍콩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해 볼 때이다.

이제 우리는 한류가 가져오는 단순한 경제적 가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한류의 지속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 과도한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각국의 사정

에 걸맞는 판매 정책과 함께 적절한 스타 마케팅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자체 제작률이 떨어지는 동남아시아 각국 시장을 비롯해 한류 열풍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폐쇄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 중화권 국가들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공동 제작 및 공동 투자 형식의 우회적인 진출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일단 팔고보자’는 일회성 접근을 지양하고, 사전에 철저한 시장분석과 함께 국가별 진출 전략의 수립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현지의 마인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공식적인 창구 확보를 위한 노력 역시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단기간의 경제적 효과에서 한단계 넘어서서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한류 확산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류의 지속화를 위해서는 한류 속에 아시아적 보편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최근 대만을 방문하고 돌아온 ‘온사마’ 배용준이 일방적인 ‘한류’가 아닌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아시아류’를 만들어가야 하는 시점이라는 지적은 이런 면에서 되새겨 볼 만하다.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류라는 흐름이 상호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자각하고 우리 문화와 상대 문화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금방 타오르는 불길은 그만큼 꺼지기도 쉬운 법이다. 이제 한류는 더 이상 경제적인 가치만을 키우는 데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 아시아 지역에서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아시아의 가치를 창출하고 아시아의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다음 호에서는 지속적인 한류의 발전 방안을 짚어보고, 아시아 전역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계속)

jasika@kbi.re.kr